

광주여성영화제 6일 개막... '차별속 연대' 담아낸다

10일까지 광주극장·CGV금남로·독립영화관... '우리는 빛으로' 주제 56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광주극장·CGV금남로·광주독립영화관에서 '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를 개최한다. 올해 광주여성영화제는 '우리는 빛으로'를 주제로, 배제와 차별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비추며 연대한 여성·소수자들을 담은 영화 56편(장편 23편, 단편 33편)을 상영한다. 영화는 광주여성영화제 누리집(www.wffig.com)을 통해 예매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영화표는 5000원이다. 무상에 부문(배리어프리 색신) 영화는 무료 상영한다.

영화제 주요 부문(색신)은 ▲신진 감독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퀸 당선작'(20편) ▲광주의 여성감독과 여성서사를 발굴하기 위한 '메이드인 광주'(4편) ▲인도네시아 여성감독 작품으로 구성된 '발리국제단편영화제 교류전'(5편) ▲아시아 국가의 여성·소수자 현실을 반영한 '플래시 아시아'(4편) 등이다. 5·18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와 함께 젠더폭력의 회복을 다루는 '스페셜 토크', 영화 상영 후 영화인과 관객이 대화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등 28개 토크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 광주여성영화제는 '퀸 당선작' 부문을 단편영화뿐 아니라 장편영화까지 확대했다. '메이드인 광주' 부문 작품을 모두 무상에(배리어프리)로 상영하고, 해외 교류전에 발리국제단편영화제 기획자(프로그램)를 초청하는 등 다양성·접근성 강화에 힘썼다. 이신화 콘텐츠산업과장은 "광주여성영화제로 국내·외 영화 교류가 촉진되고 문화도시로서 광주의 역량도 커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영화제에 참여해 문화를 향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인공지능이 작곡하고 연주하는 무대, 나주서 펼쳐진다
나주문화재단, 신개념 음악 프로젝트 '미래의 선율' 5일 개최

나주문화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개념 음악 프로젝트 '이봄(EvoM)·인피니아(INFINIA)'가 들려주는 미래의 선율을 오는 11월 5일 저녁 7시에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예술과 첨단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공연 패러다임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 기획 공연이다.

국내 최초 AI 작곡기술인 '이봄(EvoM)'과 세계 최초 AI 피아노 연주 기술인 '인피니아(INFINIA)'가 무대를 같이 꾸미며 미래 음악의 방향성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광주과학기술원 AI융합학과 교수이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인 안창욱 교수의 기초 강연으로 시작해 AI 작곡가 '이봄(EvoM)', AI 피아노 '인피니아(INFINIA)', 그리고 이와 유스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AIx오케스트라' 협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창욱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은 딥러닝 기반의 기존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과 달리 화성학, 대위법 등 음악이론을 융합한 원리 기반의 인공지능 작곡 기술로 더 음악적 완성도가 높고 인간적 감성을 반영한 선율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 AI 피아노 '인피니아(INFINIA)'는 악보 읽기와 해석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 감성적 표현과 해석을 기반으로 연주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AI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줄 예정이다.

관객들은 인공지능이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는 생성형 음악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무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미래 세대가 마주할 예술 환경의 변화를 시민들이 한발 앞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라며 "AI 기술이 문화예술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양시는 오는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올해 여섯 번째 기획전 '변옥란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사)한국미술협회 광양지부 소속 변옥란 작가의 개인전으로, '자연의 유희'를 주제로 사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서화와 3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사계(四季)를 살아 숨 쉬는 존재로 바라보며, 계절마다 다른 리듬과 색채, 바람과 온도를 캔버스에 담고자 했다. 또한 계절이 바뀌며 자연이 보여주는 변

광양시, 기획초대전 '변옥란 展' 개최

7일~12일,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자연의 유희' 주제

화와 그 속에 깃든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기쁨을 작품에 표현했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예술의 여유를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예술과(☎ 061-797-2528)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도기박물관에서 불명과 함께 깊은 가을 속으로

7~9일 전통 장작가마 소성 행사... 생활도기 할인 구입도

영암도기박물관이 7~9일 장작가마 영암요에서 영암군의 '2025 대한민국 한옥 문화비엔날레'와 연계해 전통 장작가마 도기 굽기 체험인 소성 행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도기박물관을 방문하면 장작가마의 불길 속에서 도기가 완성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고, 불의 흐름과 재가 남긴 흔적에 따라 다른 표정을 갖는 도기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장작가마 소성인 이번 행사는 국가사적 제338호 '구림도기가마터'의 전통을 오늘에 잇고, 장작가마에서 탄생하는 영암도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행사 기간 관람객은 무료 현장 접수로

소성 과정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장작에 소원을 적어 불길 속에 넣으며 염원을 비는 '소원장작 쓰기, 밤에 장작불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불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소성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불명은 저녁 9시까지 즐길 수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소성 마지막 날인 9일에는 가마 운영 종료에 따라 정오에 체험이 마무리된다. 소성으로 완성된 도기는 가마가 충분히 식은 뒤인 20일로 예정된 출품 과정을 거치는데, 안전과 도기 파손 위험이 있어 공개되지 않는다. 영암도기박물관 내 판매장에서는 1~16



일 한옥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단체·범인을 제외하고 최대 30%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생활도기 특별판매도 진행한다. 전통 장작가마에서 탄생한 생활도기, 선물용 도기를 합리적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할인은 행사 표기 품목에 한하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장작가마의 따뜻한 속에서 소원을 빌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길 바란다. 여기서 탄생한 생활도기를 경제적 가격에 구입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보는 것도 좋다"고 권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순천문인협회, 제19회 전국대학생 무진기행 백일장 개최

김승옥 작가의 문학 혼을 잇는 젊은 창작의 무대

한국문인협회 순천지부는 오는 7일 순천문학관 일원에서 '제19회 전국대학생 무진기행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일장은 순천 출신의 소설가 김승옥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문학적 상상력과 창작의 열정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대학생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시제 및 글제는 당일 현장에서 제시되며, 참가자는 운문(시) 또는 산문 중 한 부문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사전 신청자와 현장 접수자 모두 학생증 등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야 한다. 시상식은 행사 당일 오후 3시 순천문학관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며, 대상 1명(100만원), 금상 2명(각 50만원), 은상 2명(각 30만원), 동상 3명(각 1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백일장은 '제10회 김승옥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며, 김승옥 작가님이 직접 자리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문학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순천문인협회 관계자는 "순천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탄생한 문학의 도시"라며, "젊은 세대가 김승옥 문학의 정신을 되새기며 자신만의 언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